

역할부여가 '강경대 사건'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해경 · 이수원

한양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역할처치가 사회적 사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경대 사건'을 주제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투경찰들의 재판에 대한 태도, 원인귀인,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및 처벌량의 판단에 있어서 역할에 따라 일관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였을 때 '강경대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일관된 차이가 나타났다. 재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투경찰역할집단에서는 구속된 전경들을 무죄라고 보는 반면에 시위학생역할집단에서는 유죄라고 보았다. 전경들의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에서 전경역할집단에서는 전경의 역할로 귀인하는 반면에 시위학생들은 개인성향으로 귀인하였다.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의 판단에서도 역할에 따라 일관된 차이가 나타났다. 시위학생역할자들은 전경역할자에 비해 사건관련자들에게 더 극단적인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전경의 구속원인을 개인성향으로 귀인하느냐, 역할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결과에서 이런 예언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역할에는 경찰과 시위학생, 선생과 학생, 남자와 여자, 가진자와 못가진자, 선배와 후배 등과 같이 그 역할수행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서로 다를 때 역할에 따라 특정사건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위장면에서 시위학생의 행동에 대해 판단할 때 경찰은 이 행동을

'바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지만, 학생들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들은 사회적 안정과 질서유지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위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위행동에 대한 해석은 그 사람이 맡은 사회적 역할이 경

찰이나 학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의 예에서 만약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도중 경찰의 구타에 의해 시위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사건에서 최대의 관심은 누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일가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이에 대한 처벌을 누가 받는냐의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사건 당시의 경찰이 받는다면 경찰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즉, 그 책임소재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단계를 법학에서는 '주관적 귀속'이라고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부른다(박광배, 1995). 이 단계에서는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 중에 하나는 그 행위가 고의적인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배종대, 1993). 여기서 고의성의 판단은 경찰이 자기행위의 의미를 이미 인식하고 자신이 의지를 갖고 행한 행위로 여겨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경찰이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경찰의 행동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나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경찰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Horai와 Bartek(1978)에 따르면 그 행동이 고의적으로 행한 것으로 지각될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받는 처벌량과 처벌강도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법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심리학에서 발전된 귀인이론들에 따르면 특정행동에 대한 책임귀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행위자의 개인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황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eider(1958)의 '현상적 인과추론'

(phenomenal causality)이나 Jones와 Davis(1965)의 '상응추론편파'(correspondance inference bias)와 같은 귀인이론에 따르면 일반사람들은 타인의 행위를 외부요인보다 내적 속성으로 귀인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앞의 사건에서 행위의 원인을 경찰의 내적 속성으로 귀인한다는 것은 그 경찰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성향이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의 행동이 그의 내적 성향에서 나타난 것으로 귀인하였을 때 그에 따른 책임귀인 또한 달라질 수 있다(Heider, 1965). Heider(1965)는 행위자의 행동원인을 내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귀인하였을 때 역할이나 상황으로 귀인할 때보다 그 행위자의 의도가 더 개입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그 개인이 져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경찰의 행위 원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 지각에 따라 이 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 행위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하느냐 즉, 성향으로 돌리느냐, 역할로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런 경찰행위의 원인에 대한 귀인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을 때 사건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수원과 김태준(1990)은 선배와 후배라는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을 때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피험자들에게 선배와 후배역할을 부여한 후, 선배와 후배가 서로 갈등하는 시나리오(선후배 집단 구타사건)를 제시하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에서 선,후배간의 역할에 따라 조망, 원인지각, 처벌량 판단에서 일관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선후배갈등시나리오로 제시된 사건에 대해 선배와 후배역할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준거가 서로 달랐다. 선배역할자들은 후배역할자보다 이 사건을 기강차원에서 판단하는 반면에 후배역할자들은 인격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배들은 이 사건에서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선배의 행동은 기강이 있지만, 후배의 행동은 기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후배들은 후배의 행동은 인간적이나 선배의 행동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선배와 후배의 역할에 따라 선배와 후배의 조망이 각각 '기강'과 '인격'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실험결과에서 선배와 후배의 역할에 따라 사건의 원인귀인과 처벌수준에서도 일관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역할이 부여된 집단은 이 사건의 발생원인을 후배에게 돌리는 반면에 후배역할이 부여된 피험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선배에게 그 원인을 돌렸다. 이는 선배와 후배의 역할에 따라 자신이 속한 역할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유리한 방향으로 원인지각을 달리하는 이런 경향을 Hewstone과 Jasper(1982)는 '집단고양편파'(group-serving attribution bias)라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집단고양편파는 특히 내집단원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일 때 행동원인을 외적으로 귀인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수원과 김태준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또다른 결과는 사건과 관련된 선배와 후배의 처벌량에 있어서도 역할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들은 후배를 더 많이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후배들은 선배를 더 많이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역할에 따라 사건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사건해석이 달라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 한가지는 역할에 따라 판단의 준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수원과 김태준(1990)는 위의 결과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선배와 후배의 역할에 따라 조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후배 집단구타 사건에 대해 선배역할집단은 '질서'를 판단의 준거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나타난 선배의 행동은 질서가 있는 반면에 후배의 행동은 무질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벌량에 있어서도 무질서한 행동을 한 후배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후배역할집단은 '인격'을 판단의 준거로 하기 때문에 사건에서 나타난 후배의 행동은 인간적이나 선배의 행동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선배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수원과 김태준은 이들 사건해석의 차이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에 따른 조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해석의 차이는 조망 이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귀인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행동 원인을 서로 다르게 귀인 하였을 때 사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는 Kelman과 Lawrence(1972), Kelman과 Hamilton(1989)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캘리중위의 행동을 그의 성향으로 귀인하느냐, 역할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마라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Kelman과 Lawrence(1972)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주민을 학살한 일명 '마라이 사건'(베트남 전쟁 중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종전 후 캘리중위가 재판에 회부된 사건으로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을 일으킨 캘리중위의 재판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이들의 연구목적은 마라이 사건을 유발한 캘리중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이 재판을 인정하는 집단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캘리의 재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람들(불인정 집단)은 캘리가 합법적 권위자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따라서 사건의 책임을 캘리가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캘리의 재판을 인정하는 사람들(인정집단)은 베트남 학살에서 무장하지 않은 여자, 남자, 어린이들까지 학살한 것은 캘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캘리가 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캘리의 행동원인을 역할로 귀인하는 집단은 캘리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또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개인성향으로 귀인하는 집단은 캘리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당연히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캘리의 행동원인을 개인으로 귀인하느냐, 혹은 역할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캘리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즉, 캘리의 재판에 대해 '인정'과 '불인정'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Kelman과 Lawance(1972)은 연구결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는데 '인정' 집단과 '불인정' 집단간의 이런 태도의 차이는 이 두 집단에 속한 반응자들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인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경

제적 지위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으며, 반대로 불인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위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 사회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캘리와 같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였거나 그들의 자녀 혹은 이웃이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실제 사회에서 주로 명령을 내리는 계층으로 캘리와는 사회적 역할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인정과 불인정 집단의 귀인의 차이는 사회적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캘리 행동의 귀인이 달라졌으며, 이런 귀인의 차이가 이 사건의 해석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볼 때 캘리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다한 경우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역할행동으로 귀인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개인성향으로 귀인한다. 캘리의 행동이 실제 그가 처한 역할이나 상황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의 성향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는 이런 현상을 Jones(1990)는 '상응편향(correspondence bias)'이라 명명하였다. 실제 행동원인을 성향으로 귀인할 때 역할로 귀인할 때보다 행위자가 원래 그런 행동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eider, 1958). 따라서 캘리의 행동을 그의 개인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을 때 그가 원래 그런 학살행동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앞에서 타인의 행동원인을 다르게 귀인하였을 때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성향으로 돌리기도 하고, 역할로 돌리기도 하는가? 이수원과

김태준(1992)은 이런 귀인의 차이가 특정한 역할의 몰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특정 역할에 깊이 개입하는 조건과 미개입조건으로 조작한 뒤, 동일한 타인의 행동원인을 추론하게 하였을 때 그 행동원인을 귀인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실험절차에서 역할개입집단은 의견토론의 주제인 사원선발제도에 대한 토론에서 시험제도나 추천제도 중 어느 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주어졌으며, 역할미개입집단은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실험절차에서 피험자들을 서로 자신과 반대입장의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게 한 뒤, 상대가 그런 행동 혹은 의견을 제시하게 된 원인을 추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역할개입집단일수록 상대의 행동원인을 그의 개인성향으로 돌렸으나, 역할미개입집단일수록 상대의 행동을 그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렸다. 이 결과는 역할에 깊이 개입할수록 즉, 자신을 역할에 동일시할수록 외집단 성원의 행동을 그의 개인성향으로 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원과 김태준(1992)의 연구에서 볼 때 역할의 몰입 처치가 반대역할자의 행동을 그의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귀인하게 하였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보면 Kelman과 Hamilton의 연구에서 나타난 인정집단과 불인정 집단의 귀인 차이는 결국 캘리와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하는 즉, 역할에 몰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단지 조사연구를 통해 '마라이 사건'(My Lai)의 해석의 차이가 캘리와 사회적 동일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실제 사회적 역할의 동일시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여 나타난 결과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하게 하였을 때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에 발생한 '강경대 구타치사 사건(일명 강경대 사건)'을 주제로 이 사건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 사건은 1991년 시위도중 시위를 진압하려던 전투경찰들에 의해 시위학생을 집단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집단구타에 의해 시위학생(강경대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전투경찰 5명과 현장지휘관이 구속된 사건으로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본 연구에서 강경대 사건을 주제로 한 이유는 '마라이 사건'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이 두 사건 즉, '마라이 사건'과 '강경대 사건'은 하나는 미국에서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모아졌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유사한 점은 이 두 사건에서 관련자들은 모두 역할수행 중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사람은 경찰로서 또 한 사람은 군인으로 역할을 다한 경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을 서로 상이하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라이 사건'의 해석과 캘리중위의 재판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달라졌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강경대 사건'의 해석과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경에 대한 태도 또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경대 사건'을 주제로 사회적 역할을 조작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역할을 조작하기 위해 구속된 전경과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할 수 있는 전투경찰의 역할과 전경역할에 동일시할 수 없는 시위학생의 역할로 각각 역할처치를 하였다. 역할처치는 Gaertner, Mann, Murrell 및 Dovidio

(1989)의 범주화 처치 전략에 따랐다. 범주화 처치 전략은 먼저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의 역할을 부여한 뒤, 역할정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역할을 대표하는 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두 집단 간에는 경쟁을, 집단내에서는 협동을 강조함으로써 역할에 몰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범주화 처치전략은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이라는 역할에 동일시하거나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으로 역할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였을 때 전투경찰역할자들은 구속된 전경들과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하기 때문에 구속된 전경들을 내집단 성원으로 지각할 것이다. 반대로 시위학생 역할자들은 구속된 전경들과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외집단 성원으로 지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투경찰역할자들은 내집단인 전경의 구속원인을 그의 역할로 귀인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전경이 무죄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시위학생역할자의 경우 개인성향으로 귀인할 것이므로 구속된 전경들이 유죄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귀인의 차이는 처벌량의 판단에서도 일관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의 판단에서 시위학생역할자들은 전투경찰역할자에 비해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그들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이수원과 김태준(199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사건의 원인지각과 조망, 처벌량에서 일관된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경찰들은 그들의 역할이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보수'가치를 추구하는 반면에 시위학생들은 사회변화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진보'가치를 추구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각이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전투경찰들은 이 사건을 학생들의 '과격시위'로 돌리는 반면에 시위학생들은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집단고양편파'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부생중 남학생 96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3명씩 6명을 하나의 실험집단으로 하여, 각각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의 역할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재료

본 실험의 재료는 1991년 4월 27일에 일어난 '강경대 사건'을 주제로 하였다. 이 사건은 시위도중 시위학생 중 한명이었던 강경대군이 시위진압을 하던 전투경찰들의 집단구타에 의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단구타에 가담한 5명의 전투경찰들과 현장 지휘관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명 '강경대군 구타치사 사건(강경대 사건)'으로 불리는데 본 연구는 이 사건을 주제로 이 사건의 전반적인 해석과 구속된 전경들의 재판에 대한 태도, 원인귀인, 처벌량 판단에서 역할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인 조작

독립변인의 조작은 크게 두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의 역할을 부여하여 역할범주화

를 한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역할몰입단계로서 조별토의과제 수행을 통해 역할정체감을 강조하여 역할에 몰입 혹은 동일시하도록 한 단계이다.

역할범주화단계 : 먼저 남자 6명이 실험대기 장소에 모이면,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집단의사결정기술'을 알아보려는 실험이라고 소개한 뒤, 앞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조별토론이 수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먼저 6명의 피험자들에게 6개의 이름표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착하게 하였다. 이름표에는 빨간색의 전투경찰1, 2, 3라고 써어진 이름표와 파란색의 시위학생1, 2, 3라고 써어진 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택한 이름표에 따라 전투경찰과 시위학생 역할별로 조로 나누어 집단을 범주화하였고 앞으로의 과제수행에서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역할몰입단계 : 조편성이 끝나면 칸막이에 의해 공간이 나뉘어진 실험실 양편에 있는 테이블에 자신의 명찰명과 같은 자리에 찾아 앉게 하였다. 피험자들이 자리에 앉게 되면, 지시문과 사건의 개요, 두개의 상반된 입장이 적힌 시나리오, 답안지가 주어졌다. 실험의 절차와 내용을 적은 지시문의 내용은 녹음기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토론주제인 '강경대 사건'에 관한 사건개요를 읽게 한 뒤,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을 대변하는 두개의 상반된 입장의 시나리오의 일부를 읽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게 하였다. 각 입장을 대변하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은 주어진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의 역할에 몰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시된 사건개요와 역할몰입처치를 위해 사용된 두개의 상반된 입장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사건개요)

아래에 쓰여진 내용은 4년전에 일어났던 '강경대 사건'

의 사건개요입니다.

- 동아일보, 1991년 4월 27일자 발매 -

...1991년 4월 27일 명지대 앞에서 학생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3백여명의 시위대와 1백여명의 선봉대로 나뉘어져 있었다. 학생 선봉대와 경찰과는 1백여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서로 대치상태에서 시위선봉대는 시위현장의 전체적인 전황과 경찰의 동정을 연락받아야 했다. 강경대는 선봉대속의 일원으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시위대와 직접 맞서는 진압복 차림의 의경 2개 중대와 사복체포조 1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복 체포조는 학교 앞 골목에 2개 소대와, 학교 옆 골목에 1개 소대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학생들과 경찰은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집전을 계속하였다. 오후4시 15분경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중 1개가 사복체포조 중 1명의 뒷머리에 맞아 사복 경찰관의 온몸이 화염에 휩싸였다. 전경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

갑자기 '와'하는 함성과 함께 쇠파이프를 든 사복체포조 2개 소대가 학교앞 골목길에서 뛰쳐나와 시위본대와 선봉대 사이로 뛰어 들었다. 이들은 검은색 테이블을 감은 1.2미터 길이의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기습당한 학생들은 놀라 학교 안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군은 도주로를 차단당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가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흐물어져 있는 담장(1.5미터 높이)쪽으로 뛰었다. 강군은 담을 손으로 잡고 넘으려는 순간 사복체포조 전경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사복체포조 5, 6명이 강군을 둘러 싸고 발길로 차고 쇠파이프를 내리쳤다.

강군의 사망에 대해 각계각층의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강군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전경 5명과 현장지휘관이 구속되었다....

(시위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나리오)

시위학생의 입장 "의사표시 봉쇄 댄 저항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강경대 학우 사망사건 이후 캠퍼스는 연일 이어 지는 집회와 시위로 소란스럽다. 강군을 때려 숨

지게 한 전경대원들을 향해 학생들이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장면을 만날 때마다 또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는 옛날의 동료인 전투경찰대원들을 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 든다.

울 봄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만난 친구들은 내가 다친 사연을 듣고서 '너도 시위를 하다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시위학생들도 너의 팔을 부러뜨릴 마음은 없었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처음에는 그말이 야속했지만, 데모가 벌어지면,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최루탄을 볼 때마다 조금씩 그 의미를 알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염병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는 학생들에게 '과격시위는 하지마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온 캠퍼스가 매운 최루가스로 뒤덮히고 여학생들이 전경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불끈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최루탄 세례와 위압적인 사복체포조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학생들의 과격시위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전경을 죽이려고 화염병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려 해도 원천봉쇄다, 경비강화다해서 입을 틀어막고 손을 뒤로 묶는다면 저항할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전투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나리오〉

전투경찰의 입장' "화염병에 동료 쓰러질 땐 누군데 이성적일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아선 하루 하루가 무섭다. 학생들이 던지는 돌맹이와 화염병을 막아내는 일도 힘에 벅차지만 강경대군 구타사건 이후 전경들을 모두 살인범으로 보는 시선을 견디기가 참으로 괴롭다...서울 시경 제4기동대 94중대에 소속돼 있으면서 매일 같이 학생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늘(1일)도 낮 12시까지 경비를 섰던 자리였다. '백골단'이란 이름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우리 대원들도 우리 사회갈등의 희생양이다. 강경대군을 숨지게 한 사건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원들은 너무 괴롭다. 진심으로 죽이고자 해서 때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시위진압에 지치고 동료들이 화염병속에 쓰러져 가는데 격분해서 무의식중에 저지른 실수이다...

처음 대학생으로서 백골단이 되었을 때 참으로 갈등이 컸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시위도 해 봤고, 열심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백골단이 되고 난 뒤 나에게는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사회가 유지될 때만이 학생운동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변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정된 사회속에서 학생들의 학업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전경으로서 나는 나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 전경의 역할은.....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을 대변하는 각자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뒤, 당신의 입장(전투경찰/시위학생)에서 볼 때 '강경대 구타치사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제시되어 있는 원인들(시위의 과격성, 진압의 과격성, 전경의 잘못된 역할, 학생의 잘못된 역할, 사회구조의 문제, 가치관의 차이, 전경의 난폭성, 운과 운명)중에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요인(1위)에서 부터 가장 비중이 작다고 생각하는 요인(8위)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는 먼저 개인별로 결정한 뒤 답안지의 개인결정순위란에 적게 하였다.

개인결정순위가 끝나면 전투경찰과 시위학생 조별로 각기 조별토의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조별토의에서는 조원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개인이 결정한 순위를 단일한 답안으로 통일하게 하여 조별공동순위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 조별공동순위를 답안지의 조별결정순위란에 적게 하였다. 조별토의과정에서 집단정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각 조를 대표하는 조명을 지어 각자의 이름표와 답안지 상단의 조명란에 적게 하였다.

조별토의과제가 끝난 후, 조별결정순위를 그 이유와 함께 상호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

다. 상호발표단계에서는 첫째 집단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좌석배치를 조별로 마주보게 앉게 하여 집단범주를 강조하였다.

둘째, 역할에 따라 각 역할집단을 대표하는 조별 명칭을 먼저 말하게 한 뒤 조별로 결정한 순위를 발표하게 하여 집단정체감을 강조하였다.

셋째, 각 역할집단별 참여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조(3인조)와 비교하여 다른 조에 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수록 높은 학점카드를 받게 된다고 하여(동일한 점수의 3장) 두 역할집단간에 경쟁이 되도록 하였다.

중속변인 측정

1) 태도

재판에 대한 태도 : 전투경찰의 재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강경대 사건과 관련된 5명의 전투경찰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9점척도상(1점 : 매우 반대한다에서 - 9점 : 매우 찬성한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전경들에 대한 유죄판결에 찬성하는 것이다.

2) 원인 귀인

성향 대 역할 귀인 : 전투경찰의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1에 제시된 9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에게 아래 각 문항을 제시한 후, “당신이 얼마나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를 각각 9점척도상(1점 : 매우 반대한다에서 - 9점 : 매우 찬성한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한 결과를 주축요인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하였다. 요

인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전투경찰의 구속원인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문항들

1. 아무리 시위상황이라고 해도 학생들을 구타, 살해할 수는 없고, 이런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2. 재판은 시위장면에서의 비도덕성과 잔인성을 규명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항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해준다.
3.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복지를 파괴하는 경찰은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4. 재판은 누구든지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것이다.
5. 많은 다른 경찰도 시위현장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없이 전투경찰을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시위현장에 전경을 파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한 전투경찰로서 그의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해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7. 그 재판은 우리에게 실제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준다. 문제는 전투경찰의 행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그 대처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8. 재판은 전경을 속죄양으로 이용하고 있다. : 상관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 한 젊은 전경의 죄가 될 수 없다.
9. 재판은 우리의 경찰들에 대한 모욕이고, 한국 경찰의 사기를 약화시킨다.

표 2. 전경의 구속원인을 측정하기 위한 9개 요인의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 1 (2.63)*	요인 2 (1.44)	요인 3 (1.22)
1	.7892	-.2031	-.0346
3	.5138	-.0979	.3852
5	.7694	.1953	.0882
7	-.0305	.5922	-.2663
8	-.0032	.7049	-.3163
9	-.0714	.8561	.1209
2	.1277	-.3560	.6020
4	-.0267	-.0281	.7537
6	-.0816	.0466	-.6007

()*는 Eigenvalue임

요인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경의 구속원인을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요인 1에 해당하는 문항은 문항 1,3,5로서 구속의 원인을

전투경찰의 개인성향으로 돌리는 문항들로 '성향귀인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2에 해당하는 문항은 문항 7,8,9로서 전경행동의 원인을 역할에 돌리는 '역할귀인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문항 2,4,6으로 '상황귀인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성향 대 역할귀인의 측정은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성향, 역할, 상황에 해당하는 각 문항들을 합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각 귀인문항에 점수가 클수록 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경찰 대 시위학생 귀인 : 강경대 사건이 발생할 당시 전투경찰이 그렇게 행동한 원인에 대해 역할집단별 귀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경들이 임무수행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이다(전투경찰 귀인)', '시위학생들이 너무 과격하게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시위학생 귀인)',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사회적 상황 귀인)' 3개의 원인귀인문항을 제시하고 100점으로 점수를 할당하게 하였다. 제시된 문항에 대해 부여한 점수를 기준으로 전투경찰 대 시위학생의 귀인값을 측정하였다. 각 귀인문항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부여할수록 그 문항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3) 조망측정

피험자들이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에 대한 인상을 어떤 조망에서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성판단점수를 기초로 보수성 및 진보성 가치차원에서 준거가치변별값을 산출하였다. 특성판단점수는 6명이 과제수행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6명에 대해 보수와 안정성 차원에 해당하는 3문항씩 6

문항이었다. 즉, 보수차원에 해당하는 문항 '안전하다-위태롭다', '신중하다-성급하다', '신뢰롭다-불안하다'와 진보차원에 해당하는 문항 '진취적이다-보수적이다', '개방적이다-폐쇄적이다', '자주적이다-타율적이다'을 제시하고 9점 척도에서 평정한 점수를 기초로 준거가치변별값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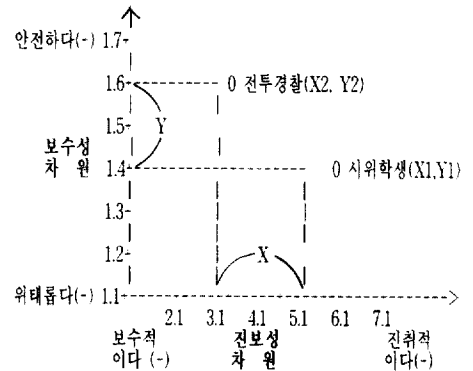


그림 2.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에 대한 인상평가의 준거가치차원

그림 2 에서 Y는 전경집단 구성원들과 학생 집단 구성원들의 인상이 전경의 대표적 특성인 보수성 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시위학생의 대표적 특성인 진보성 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준거가치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각 준거차원에 입각해서 전투경찰 혹은 시위학생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준거가치변별값의 계산은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방법을 따랐다.

4) 강경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측정

강경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elman과 Lawrence(1972)가 사용한 문항들을 번역, 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태도 측정문항에는 크게 3종류의 하위 태도문항

들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태도 측정 문항들과 둘째, 캘리중위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들, 셋째,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을 측정하는 문항들이었다.

강경대 사건과 관련된 태도 측정 문항들은 ‘강경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람은)’ 등과 같이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를 묻는 7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표 8 참조). 캘리중위의 행동(베트남 전쟁중 베트남 주민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태도측정문항(표 9 참조)에는 캘리중위가 상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와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각 유죄판단 여부를 물음하는 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을 측정하는 문항들(표 10 참조)에는 구속된 전경들과 전경들의 직속상관들, 관련부서 장관들, 사건 당시 시위를 벌였던 시위학생에 대해 각각 처벌을 할 경우 적절한 처벌량을 묻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4개의 문항들에 대해 각각 무죄, 집행유예/자격박탈, 단기 실형(1년에서 2년), 장기 실형(5년 이상에서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의 4종류의 항목들을 제시하고 적절한 처벌량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실험해명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실험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본래의 실험목적과 독립변인 처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위장했던 실험절차들을 설명, 사과하였다.

결 과

1. 역할집단에 따른 사건 지각의 차이

1) 태 도

재판에 대한 태도 : 전경들의 재판에 대한 태도가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 3을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점수가 클수록 유죄판결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다.

표 3. 역할집단별 재판에 대한 태도 평균(SD)

역 할	재판에 대한 태도
전투경찰(n=48)	5.90(2.51)
시위학생(n=48)	6.88(1.67)

* 점수가 클수록 유죄판결에 찬성하는 것임.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경역할집단에 비해 학생역할집단이 전경들에 대해 유죄판결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결과에서 역할 주효과가 유의미하여($F(1,94) = 5.06, p < .05$) 이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재판에 회부된 전경들에 대해 내집단인 전투경찰들에 비해 외집단인 시위학생들이 더욱 유죄판결에 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조 망

역할에 따른 조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처치조건별 준거가치변별값을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가정한 바에 의하면 전투경찰들은 시위학생에 비해 보수가치를 준거로 판단하는 반면에 시위학생들은 전투경찰에 비해 진보가치를 판단의 준거로 할 것이다. 준거가치 변별값이 크다는 것은 보수 혹은 진보의 조망을 더 크게 갖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역할집단별 준거가치변별값 평균(SD)

역 할	준거가치변별값	
	보 수	진 보
전투경찰(n=44)	.53(1.06)	-.01(1.20)
시위학생(n=45)	-.28(1.04)	.66(.85)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역할에 따라 조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준거가치는 시위 학생(평균 -.28)보다 전투경찰(평균 .53)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F(1,87)=12.34, p<.01$). 반면에 진보준거가치는 전투경찰(평균 -.01)보다 시위학생(평균 .66)에서 더 크게 나타나($F(1,87)=13.18, p<.01$), 이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시위학생들은 판단의 준거를 진보조망에서 판단하는 반면에 전투경찰들은 판단의 준거를 보수조망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에 따라 조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3) 귀 인

성향 대 역할 귀인 : 전경들의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에서 성향, 역할 및 상황 귀인 문항들에 대해 각각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처치조건별 귀인의 평균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역할집단별 전경들의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 평균(SD)

역 할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		
	성 향	역 할	상 황
전투경찰(n=48)	6.94(1.31)	6.90(1.64)	5.52(1.16)
시위학생(n=48)	7.42(1.31)	6.64(1.35)	5.49(1.20)

표 5에서 보듯이 역할에 따라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전경의 개인성향으로 귀인하는 정도는 전투경찰(평균 7.42)에 비해 시위학생(평균 6.94)들이 더 크게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역할귀인의 정도는 시위학생들(평균 6.62)에 비해 전투경찰들(평균 6.90)이 더 크게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귀인의 정도는 시위학생(평균 5.49)에 비해 전투경찰(평균 5.52)이 더 크게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향귀인에서는 역할주효과가 유의하여 통계적으로 이 결과를 지지하였으나($F(1,94)=3.44, p<.05$), 역할귀인과 상황귀인에서는 각각 역할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전경들의 재판원인에 대해 시위학생들은 전투경찰들에 비해 전경의 개인성향으로 돌리지만 반대로 전투경찰들은 시위학생에 비해 역할이나 상황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위학생들은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성향으로 돌리지만 전투경찰들은 역할이나 상황으로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유죄판결에 대한 태도(표 3)와 관련지어 볼 때 시위학생들은 전경들의 행동을 성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유죄판결에 찬성하는 것이며, 전투경찰들은 전경들의 행동을 역할로 돌리기 때문에 유죄판결에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성향 대 역할귀인과 유죄판결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표 7).

전경의 과잉진압 대 학생의 과격시위 귀인: 구속된 전경들이 사건 당시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 역할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속된 전경들의 행동이유를 3가지 즉, 전경의 과

잉진압, 시위학생들의 과격시위, 사회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역할집단별 귀인 평균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앞서 가정한 바에 의하면 전투경찰역할자들은 구속전경들의 행동원인을 시위학생들의 과격시위로 돌리는 반면 시위학생역할자들은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돌리는 집단고양편파가 나타날 것이다.

표 6. 역할집단별 구속된 전경들의 행동 원인 귀인 평균(SD)

역 할	전경의 행동 원인 귀인			
	전경과잉진압	학생과격시위	시대적상황	
전투경찰(n=47)	27.19(16.10)	32.91(15.61)	39.26(21.06)	
시위학생(n=48)	33.44(17.33)	25.10(13.51)	41.46(22.85)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구속된 전경들의 행동 원인에 대해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귀인하는 정도는 전투경찰역할집단(평균 27.19)에 비해 시위학생역할집단(평균 33.4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위학생의 과격시위로 귀인하는 정도는 시위학생역할집단(평균 25.10)에 비해 전투경찰역할집단(평균 32.91)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황으로 귀인하는 정도는 전투경찰집단(평균 39.26)보다 시위학생집단(평균 41.4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역할에 따라 전경의 과잉진압에 대한 귀인량을 변량분석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94)=3.31, p<.05$). 이 결과는 전경역할집단은 전경의 행동원인을 외집단인 시위학생들의 과격시위로 더 크게 돌리는 반면에 학생역할집단은 전경의 행동원인을 외집단인 전경의 과잉진압으로 더 많이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에 따라 집단고양편파가 일어날 것이

라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4) 재판에 대한 태도, 귀인, 조망

여기서는 구속된 전경들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에 찬성하는 태도가 성향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죄찬성태도와 성향 대 역할귀인, 조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간의 상관을 분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유죄판결에 대한 태도, 귀인, 조망과의 관계(N=98)

	유죄판결찬성	성향귀인	역할귀인	보수가치	진보가치
유죄찬성	--	.55**	-.31**	-.12	.22
성향귀인		--	-.18	-.21	.30*
역할귀인			--	.30*	-.11
보수가치				--	-.48**
진보가치					--

상관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태도는 성향귀인과 정적 상관($r=.55$)이 있는 반면에 역할귀인과는 부적 상관($r=-.3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경의 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할수록 전경들을 유죄라고 판단하지만, 역할로 귀인할수록 무죄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향귀인은 보수가치와는 상관이 없지만 진보가치와 정적 상관($r=.3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역할귀인은 진보가치와는 상관이 없지만 보수가치와 정적 상관($r=.3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가치를 가질 수록 전경들의 행동원인을 성향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보수가치를 가질 수록 전경들의 행동원인을 역할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성

향과 역할귀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성향과 역할귀인이 보수와 진보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위의 결과를 표 4의 역할에 따라 조망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진보가치를 가진 시위학생일수록 전경의 행동원인을 성향으로 더 많이 돌리는 반면 보수가치를 가진 전경수록 역할로 더 많이 돌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강경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측정

강경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전체 피험자 96명들에게 태도측정문항을 제시한 후, 이에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들은 크게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들과 캘리중위의 행동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들,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Kelman과 Lawrence(1972)이 사용한 문항들을 번역, 개작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재판에 대해 '인정집단'과 '불인정집단'에 따라 일관된 반응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역할집단에 따라 일관된 반응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 :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는 강경대 사건의 원인, 전경들을 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한 인정여부, 전경들의 상사인 현장 지휘관에 대한 태도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에서 전경과 학생역할처지집단에 따른 반응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투경찰역할집단(이하 전경집

단)과 시위학생역할집단(이하 학생집단)에 따라 일관된 반응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문항 A1에서 “강경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이라는 물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전경과 그의 상관들’ 둘다 아니다’에 62%가 반응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62%), ‘전경과 그의 상관들’이 2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각 역할집단 내에서 살펴보면 전경역할집단은 67%가 ‘둘다 아니다’에 반응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21%가 ‘전경과 그의 상관들’로, 8%가 ‘전경’ 단독으로, 4%가 ‘전경의 상관들’단독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학생역할집단은 56%가 ‘둘다 아니다’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며, 31%가 ‘전경과 그의 상관들’로, 10%가 ‘전경의 상관들’단독으로, 2%가 ‘전경’단독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건원인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시위학생들이 전투경찰에 비해 이 사건을 ‘전경과 그의 상관들’이 일으켰다고 보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에 비해 사건원인을 ‘전경과 그의 상관’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표 6에서 나타난 학생집단이 전경집단에 비해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그의 개인성향으로 더 많이 돌리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원인에 대한 전경과 학생집단에서의 이런 지각의 차이는 문항 A2, A3에서도 일관된 반응 차이를 보였다. 문항 A2에서 “시위현장의 지휘관이 직접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부하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은”이라는 물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79%가 ‘옳다’고 반응하여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각 역할집단내에서의 반응경향을 살펴보면, 전경

역할집단은 77%가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보았으며, 17%가 '잘 모르겠다'에, 6%가 '옳지 않다'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역할집단은 81%가 '옳다'에, 10%가 '옳지 않다'에, 8%가 '잘 모르겠다'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경의 상관들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전경역할집단에 비해 학생역할집단이 더 '옳다'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문항 A3에서 “전투경찰들이 그 당시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 행한 범죄행동에 대해 재판을 하는 것은”이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58%가 '옳다'고 반응하여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각 역할집단내에서의 반응 경향을 살펴보면, 전경역할집단은 54%가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보았으며, 25%가 '옳지 않다'에, 20%가 '잘 모르겠다'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역할집단은 63%가 '옳다'에, 35%가 '옳지 않다'에, 2%가 '잘 모르겠다'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할집단간 반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8.51$, $df=2$, $p<.01$). 이 결과는 전경의 상관들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전경역할집단에 비해 학생역할집단이 더 '옳다'고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문항 A4에서 A6까지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전경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는 문항들을 제시하고 그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역할집단에 따라 일관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경집단이 학생집단에 비해 가상적인 상황에서 더 명령을 따르거나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A4에서 “만약 시위현장의 학생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라고 명령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전경과 학생역할집단 모두 84%가 명령에 따른다고 응답하였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집단의 경우 79%가 명령에 따른다에, 21%가 명령을 거부한다에 반응하였다. 반면에 전경집단에서는 90%가 명령에 따른다에, 10%가 거부한다에 반응하였다. 이 결과는 학생집단에 비해 전경집단이 가상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명령에 따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A5에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의 경우 명령에 따른다에 55%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에 45%가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경집단의 경우 58%가 명령에 따른다에, 42%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에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실제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음하였을 때는 명령에 따르는 정도가 전경집단과 학생집단 두 집단 모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피험자들이 실제 두 역할집단 모두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구속된 전경들이 상관으로부터 실제 강제 진압을 명령 받았다면 그 전경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나”라는 물음에 대해(문항 A6)에 대해 학생집단과 전경집단 모두 실행해야 한다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60%). 각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학생집단의 경우 55%가 '실행해야 한다'에, 45%가 '실행을 거부해야 한다'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경집단은 65%가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에, 35%가 '거부해야 한다'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집단이 전경집단에 비해 이 사건에서 진압명령을 받았을 때 더욱 명령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문항 A7에서 “구속된 전경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이라는 물음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옳지 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85%). 옳지 않다고 보는 정도가 전경집단에 비해 학생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경집단은 79%가 ‘옳지 않다’에, 21%가 ‘옳다’에 반응한 반면에 학생집단은 92%가 ‘옳지 않다’에, 8%가 ‘옳다’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옳지 않다항목 2,3,4를 합친 것임). 이런 집단별 반응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3.01$, $df=1$, $p<.05$). 이 결과는 전경집단에 비해 학생집단이 더욱 전경의 행동을 옳지 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표 8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원인(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람들)을 전경집단에 비해 학생집단들이 더 ‘전경과 그의 상관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사건당시 현장지휘관이 명령을 내린 경우와 내리지 않은 두 경우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경향성이 그외에 가상적 상황에서의 전경의 행동방향을 묻는 문항(문항 A4, A5, A6)과 전경에 대한 전반적인 행동평가 문항(A7)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표 8. 역할집단별 강경대 사건의 재판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들

	역 할		
	전경 (n=48)	학생 (n=48)	전체 (n=96)
A1. '강경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람은)?			
①전경과 그의 상관들	21%	31%	26%
②전경	8	2	5
③전경의 상관들	4	10	7
④둘 다 아니다	67	56	62

A2. 시위현장의 지휘관이 직접 명령 내리지 않았지만 부하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은?

①옳다	77	81	79
②옳지 않다	6	10	8
③잘 모르겠다	17	8	13

A3. 전투경찰들이 그 당시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 행한 범죄행동에 대해 재판을 하는 것은?

①옳다	54	63	58
②옳지 않다	25	35	30
③잘 모르겠다	20	2	11

A4. 만약 시위현장의 학생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라고 명령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①명령에 따른다	90	79	84
②명령을 거부한다	10	21	16

A5.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명령에 따른다	58	55	57
②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42	45	43

A6. 만약 구속된 전경이 상관으로부터 실제 강제진압을 명령 받았다는게 사실이라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실행해야 한다	65	55	60
②실행을 거부해야 한다	35	45	40

A7. 구속된 전경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①옳다 - 어떤 전경이나 경찰들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21	8	15
	79	92	85
②옳지 않다 - 그러나 그가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알기는 어렵다			
③옳지 않다 - 경찰법규의 위반이 분명하다			
④옳지 않다 - 경찰법규의 위반과 상관없이 도덕성 위반이다			

캘리중위의 행위에 대한 태도 : 캘리중위는 베트남 전쟁 중 일명 ‘마라이 사건’(무장하지 않은 베트남 시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전쟁이 끝난 후, 재판에 회부된 미국 군인이다. 캘리 중위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하게 한 이유는 캘리중위의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강경대 사건으로 구속된 전경들의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

문이었다. 캘리중위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강경대 사건'에서 구속된 전경들의 행동은 전투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역할집단은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의 태도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경역할집단보다 학생역할집단이 캘리행위를 더 유죄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서 이런 가정이 지지되었다.

캘리중위의 행동에 대한 태도측정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캘리중위의 행동에 대해 전경집단보다 학생집단이 더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명령을 받고 행한 경우'보다 '명령을 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 대해 더 크게 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B1를 먼저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에서 캘리중위가 상관의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적을 이롭게 한다고 의심되는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이라는 물음에서 전체 68%가 유죄라고 보았으며 21%가 무죄라고 보았다. 각 역할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역할집단은 71%가 '유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17%가 '무죄', 10%가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전경역할집단은 각각 65%가 '유죄'를, 25%가 '무죄', 13%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에 비해 캘리를 더 유죄라고 볼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문항 B2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캘리중위가 상관의 명령을 받고 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이라는 물음에 대해 전경과 학생역할집단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51%가 캘리가 '유죄'라고 보았으며 33%가 '무죄'라고 보았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집단은 이 물음에 대해 52%가 '유죄'를, 35%가 '무죄'를, 13%가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였다. 전경역할집단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 50%가 '유죄'를, 31%가 '무죄', 19%가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상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유죄 판단에 있어서 두 역할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의 명령이 없는 경우에 캘리중위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가 전경집단에 비해 학생집단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9. 역할집단별 캘리중위행동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들

	역 할		
	전경 (n=48)	학생 (n=48)	전체 (n=96)
B1. 베트남 전쟁에서 캘리중위가 상관의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적을 이롭게 한다고 의심되는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			
①그렇게 해야만 한다(유죄)	65%	71%	68%
②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무죄)	25	17	21
③잘 모르겠다	10	13	12
B2. 베트남 전쟁에서 캘리중위가 상관의 명령을 받고 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			
①그렇게 해야만 한다(유죄)	50	52	51
②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무죄)	31	35	33
③잘 모르겠다	19	13	16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 : 강경대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전경, 전경의 상관들, 장관들, 과격시위학생들)을 각각 처벌할 경우 적절한 처벌량을 판단하게 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처벌량을 판단하는 반응에는 무죄, 집행유예/자격박탈, 단기 실형(1년-2년), 장기 실형(5년이상에서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으로 크게 4가지 범주

로 구분하여 반응을 분석하였다. 처벌량에 대한 판단에서 특히 전경과 그의 상관들에 대한 처벌량에 대해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보다 더 과격한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보다 사건관련 자들에 대해 더 장기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전경(문항 C1)과 전경의 상관(문항 C2)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전경과 학생역할집단 모두가 무죄나 집행유예/자격박탈보다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실형중에서도 장기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는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문항들을 살펴보면 문항 C1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경들을 처벌한다면 적절한 처벌량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실형(42%)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기실형(31%)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에 찬성하는 비율은 1%에 지나지 않아 두 집단 모두 무죄선고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내에서의 반응경향을 살펴보면 전경집단은 실형중에서도 가벼운(단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응이 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집단은 중형(장기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반응이 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내에서 세부 반응률을 살펴보면 전경역할집단은 단기실형은 5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자격박탈은 31%, 장기실형은 18%, 무죄는 0%로 었다. 학생역할집단은 장기실형은 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실형은 33%, 집행유예/자격박탈은 21%, 무죄는 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X^2=8.40$, $df=3$, $p<.05$). 이 결과는 전경에 대해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보다 더 장기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보다 더 과격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문항 C2에서 “전경들의 직속상관들을 처벌한다면 적절한 처벌량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66%가 장기실형선고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을, 15%가 단기실형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경집단에서는 58%가 장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실형과 집행유예/자격박탈은 각각 21%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에서는 73%가 장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자격박탈이 19%, 단기 실형은 8%로 나타났다. 이런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진 않았으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3.40$, $df=2$, $n.s$).

문항 C3에서 “전경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장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면 적절한 처벌량은?”에 대해 각 집단내에서 반응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관들을 처벌한다면 집행유예/자격박탈(53%) 정도의 처벌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실형(33%)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역할집단별 반응률을 살펴보면 전경집단에서는 집행유예/자격박탈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기실형이 31%, 단기실형이 4%, 무죄가 2%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반응 경향성은 학생집단에서도 유사했으나, 반응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각각 집행유예 43.6%, 장기 실형 35%, 단기실형 17%, 무죄 4%).

문항 C4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과격시위-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적절한 처벌량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유예/자격박탈(44%) 정도의 처벌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실형은 32%가, 무죄는 14%가, 장기 실형은 1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경집단에서는 집행유예/자격박탈이 48%로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가 단기 실형을, 무죄와 장기 실형 선고에 대해 각각 1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에서는 40%가 집행유예를, 33%가 단기 실형을, 17%가 무죄를, 10%가 장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량에 대한 태도 측정(표 12)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장관들과 시위학생들에 대한 처벌량에 있어서는 두 역할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경과 전경의 상관들에 대한 처벌량에서 두 역할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과 전경의 상관들에 대한 처벌 문항에서 전경집단에 비해 학생집단이 실형중에서도 장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경집단보다 학생역할집단이 구속된 전경들의 행동원인을 개인 성향으로 더 많이 귀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역할집단별로 강경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결과에서 전경역할집단과 학생역할집단간의 사건지각의 차이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시위학생집단은 이 사건의 원인이 ‘전경과 그의 상관’들이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전경역할집단은 상대적으로 ‘둘다 아니다’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유사한 캘리중위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집단은 전경집단에 비해 캘리행동을 더 유죄라고 선고

표 10. 역할집단별 처벌량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들

	역 할		
	전경 (n=48)	학생 (n=48)	전체 (n=96)
C1. 이 사건과 관련된 전경들을 처벌한다면, 적절한 처벌량은?			
①무죄	0%	2%	1%
②집행유예/자격박탈	31	21	26
③단기 실형(1년에서 2년)	50	33	42
④장기 실형(5년 이상에서 종신형, 사형까지)	19	44	31
C2. 이 사건과 관련된 전경들의 직속 상관들을 처벌한다면, 적절한 처벌량은?			
①무죄	0	0	0
②집행유예/자격박탈	20	19	20
③단기 실형(1년에서 2년)	21	8	15
④장기 실형(5년 이상에서 종신형, 사형까지)	58	73	66
C3. 전경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장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면, 적절한 처벌량은?			
①무죄	2	4	3
②집행유예/자격박탈	63	44	53
③단기 실형(1년에서 2년)	4	17	10
④장기 실형(5년 이상에서 종신형, 사형까지)	31	35	33
C4.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과격시위학생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적절한 처벌량은?			
①무죄	10	17	14
②집행유예/자격박탈	48	40	44
③단기 실형(1년에서 2년)	31	33	32
④장기 실형(5년 이상에서 종신형, 사형까지)	10	10	10

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대 사건으로 구속된 전경과 그의 상관들에 대한 처벌량에 있어서도 전경집단에 비해 시위학생집단이 더 장기실형을 선고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집단이 더 과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전경과 학생집단간의 이런 일관된 반응의 차이는 전경의 구속원인을 그의 개인 성향으로 귀인하느냐, 역할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사건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학생집단이 전경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경의 구속원인을 개인 성향으로 귀인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역할귀인과 성향귀인집단에 따라 사건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성향과 역할귀인집단에 따른 사건 지각의 차이

여기서는 전경들의 행동을 성향귀인하는 집단과 역할귀인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표 5참고) 이 두 집단간의 사건판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향귀인집단은 성향귀인문항에서 평균 6점 이상 찬성하는 집단으로 하였으며 역할귀인집단은 역할귀인문항에서 평균 6점 이상 찬성하는 집단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성향귀인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21명이었으며, 역할귀인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79명이었다. 전반적으로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에 비해 전경에 대한 재판에 대한 태도, 원인귀인,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측정문항에서 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성향 대 역할귀인집단에 따라 전경의 재판에 대한 태도에서 유죄판결에 찬성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1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예상했던 대로 전경의 행동에 대해 성향귀인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유죄판결에 더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귀인집단별 재판에 대한 태도 평균(SD)

귀인집단	재판에 대한 태도
성향 (n=21)	7.52(1.78)*
역할 (n=79)	6.15(2.15)

* 점수가 콜수록 유죄판결에 찬성하는 것임.

표 2-1에서 살펴보면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유죄판결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3)=7.13, p<.01$). 이 결과는 성향귀인집단은 전경의 구속원인을 전경의 개인성향으로 귀인하는 사람들이므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더욱 찬성하지만 반면에 역할행동으로 보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사건 당시의 전경이 그렇게 행동한 원인이 전경의 과잉진압, 학생의 과격시위, 시대적 상황에 돌리는 정도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2-2를 제시하였다. 전경의 행동귀인에 있어서 성향귀인집단은 역할귀인집단보다 전경의 과잉진압에 귀인하는 정도가 더 높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귀인하는 정도는 더 낮을 것이다.

표 2-2. 귀인집단별 전투경찰의 행동 원인 귀인 (SD)

귀인집단	전경의 행동 원인 귀인			
	전경과잉진압	학생과격시위	시대적상황	
성향(n=21)	35.25(21.43)	32.75(21.61)	32.00(23.69)	
역할(n=73)	29.15(15.61)	27.97(12.85)	43.01(20.80)	

표 2-2에서 나타나듯이 사건 당시 전경의 행동원인을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돌리는 정도는 성향귀인집단(평균 35.25)이 역할귀인집단(평균 29.15)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학생들의 과격시위로 귀인하는 정도는 성향귀인집단(평균 32.75)이 역할귀인집단(평균 27.97)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돌리는 정도는 성향귀인집단(평균 32.00)보다 역할귀인집단(평균 43.01)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역할에 따른 전경의 과잉진압에 대한 귀인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역할주요효과가 유의하여 이를 지지하였다($F(1.92)=2.02, p<.01$).

이 결과는 사건당시의 전경의 행동에 대한 원인귀인에서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시위학생의 과격시위로 더 많이 원인을 돌리는 반면에 역할귀인집단일수록 시대적 상황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성향과 역할귀인집단에서의 이런 차이는 강경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측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향귀인집단은 역할귀인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태도에서 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향과 역할귀인집단에 따라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와 캘리중위행동에 대한 태도, 처벌량에 대한 태도 측정문항들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향과 역할귀인집단간의 일관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 : 먼저 강경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태도 측정에서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사건원인을 전경과 그의 상관들이 일으킨 것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문항들에서도 성향과 역할귀인집단에 따라 이런 일관된 반응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별문항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강경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문항 A1)?” 이라는 물음에 대해 성향귀인집단에서는 ‘전경과 그의 상관들’에, 역할귀인집단에서는 ‘둘다 아니다’에 대해 가장 많이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내에서 반응률을 살펴보면 성향귀인집단에서는 43%가 ‘전경과 그의 상관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았으며, 같은 비율로 43%가 ‘둘다 아니다’에, 14%가 ‘전경’ 단독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역할귀인집단에서는 67%가 ‘둘다 아니다’에 가장 많이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가 ‘전경과 그의 상관들’, 9%가 ‘전경의 상관들’, 3%가 ‘전경’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8.00, df=3, p<.05$). 이 결과는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더 크게 ‘전경과 그의 상관들’을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보는 반면에 역할귀인집단은 성향귀인집단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시위현장의 지휘관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부하의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물음(문항 A2)”에 대해 ‘옳다’와 ‘옳지 않다’고 보는 정도가 성향귀인집단에서는 각각 86%와 4%로 나타났으나 역할귀인집단에서는 77%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현장지휘관들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부하의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더 옳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래의 모든 문항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투경찰들이 그 당시 상관의 명령을 받아 행한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은 것은?(문항 A3)”이라는 물음에서 ‘옳다’와 ‘옳지 않다’의 반응이 성향귀인집단에서는 62%와 33%

로, 역할귀인집단에서는 57%와 29%로 나타나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명령을 받고 행한 전경의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은 것이 더 옳은 것으로 보았다.

“만약 시위현장의 학생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라고 명령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문항 A4)”라는 물음에 대해 ‘명령에 따른다’와 ‘명령을 거부한다’에 대해 성향귀인집단은 각각 89%와 11%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귀인집단은 각각 81%와 19%로 나타났다. 이는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강제진압명령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문항 A4)에서도 ‘명령에 따른다’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에 대해 성향귀인집단에서는 각각 71%, 29%로, 역할귀인집단에서는 53%, 47%로 나타나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더 명령에 따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3.40$, $df=1$, $p<.10$). “만약 구속된 전경의 상관으로 부터 실제 강제진압을 명령받았던게 사실이라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문항 A6)에 대해 ‘실행해야 한다’와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성향귀인집단은 각각 62%와 38%로, 역할귀인집단은 각각 60%와 41%로 나타나 두 집단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구속된 전경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이라는 물음(문항 A7)에 대해 성향귀인집단은 ‘옳지 않다’와 ‘옳다’에 대해 각각 91%, 9%로, 역할귀인집단은 각각 84%, 16%로 나타나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에 비해 전경의 행동을 더욱 옳지 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대 사건’과 관련된 태도 문항에서 나타

난 전반적인 결과는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사건 원인을 더 ‘전경과 그의 상관들’이 일으켰다고 보았으며, 구속된 전경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더 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이 나머지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현장지휘관이 재판을 받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진압을 명령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압 명령에 더 따를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결과는 강경대 사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사건해석에 있어서 더욱 극단적일 것이라는 앞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캘리중위의 행동에 대한 태도 : 캘리중위의 행동에 대한 태도 측정항목에서도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캘리의 행동이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베트남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이라는 물음(문항 B1)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유죄’와 ‘무죄’판단에 찬성하는 정도가 성향귀인집단에서는 각각 76%와 14%로, 역할귀인집단에서는 각각 65%와 23%가 응답하였으며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5.40$, $df=2$, $p<.10$). 이는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캘리가 명령을 받지 않고 행한 행동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앞의 문항과 같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고 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것은”이라는 물음(문항 B2)에 대해 ‘유죄’와 ‘무죄’판단에 찬성하는 정도

가 성향귀인집단에서는 각각 57%, 29%가, 역할 귀인집단에서는 각각 49%, 35%가 응답하여 상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 켈리행동을 유죄판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켈리가 명령을 받은 경우에서는 귀인집단간 차이가 없으나 켈리가 명령을 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켈리가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 : 처벌량에 대한 판단문항에서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실형선고(단기실형+장기실형)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경대 사건으로 직접 구속된 전경과 전경의 직속상관에 대한 처벌량을 판단하게 한 문항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전경에 대한 처벌량은?(문항 C1)”에 있어서 성향귀인집단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가 91%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의 정도는 10%가, 무죄는 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역할귀인집단은 실형을 68%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은 30%가, 무죄는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전경에 대해 실형선고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이런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3.80$, $df=2$, $p<.10$, n.s.).

“전경의 직속상관에 대한 처벌량은?(문항 c2)”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성향귀인집단은 86%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14%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을, 무죄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역할귀인집단은 79%가 실형을, 21%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을, 무죄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향귀인집단이 역

할귀인집단보다 실형선고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부서의 장관들에 대한 처벌량은?(문항 C3)”에 있어서는 두 역할집단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경과 그의 상관에 대한 처벌량 판단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귀인집단에서는 45%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40%가 실형을, 14%가 무죄라고 보는 반면에 역할귀인집단에서는 33%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45%가 실형을, 무죄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0.06$, $df=2$, $p<.01$).

이 사건과 관련된 “과격시위학생들의 처벌량은?(문항 C4)”에 대한 판단에서는 두 역할집단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격시위학생들에 대해 성향귀인집단은 50%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41%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을, 9%는 무죄라고 응답하였다. 역할귀인집단은 45%가 집행유예/자격박탈을, 40%가 실형을, 16%가 무죄라고 응답하였다.

처벌량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에서 역할귀인집단보다 성향귀인집단이 실형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전경과 전경의 상관들에 대한 처벌량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성향귀인집단이 역할귀인집단보다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을 더 크게 요구할 것이라는 앞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경대 사건’

를 주제로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으로 사회적 역할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두 역할집단에 따라 강경대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일관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구속된 전경들의 재판에 대한 태도,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 이 사건의 전반적인 태도 및 처벌량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에 따른 이런 해석의 차이가 역할에 따라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서로 다르게 귀인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전경역할자들은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전경의 역할로 귀인하는 반면에 학생역할자들은 성향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사건해석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결과 이런 가정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중요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투경찰과 시위학생 역할에 따라 전경들의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학생집단에서는 구속원인을 그 전경의 개인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전투경찰집단에서는 전경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사건 당시의 전경들이 그렇게 행동한 원인 귀인에서도 두 역할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시위학생들은 전경의 과잉진압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에 전투경찰들은 학생들의 과격시위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집단고양편파가 나타났다.

둘째 전투경찰과 시위학생 역할에 따라 구속된 전경들의 재판에 대한 태도와 이 사건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판에 대한 태도에서 시위학생집단에서는 구속된 전경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전투경찰집단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서로 달랐다. 먼저 이 사건의 원인지각에 있어서 학생역할집단에서는 전경들과 그의 상관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는 반면에 전경역할집단에서는 이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구속된 전경들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도 학생역할집단에서는 그들이 옳지 못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전경역할집단에서는 옳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량의 판단에 있어서도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경들과 전경의 상관들에 대한 처벌량 판단 문항에서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역할집단에 비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전경들의 재판에 대한 태도와 전경의 구속원인에 대한 귀인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에서 성향귀인과 재판에 대한 태도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성향으로 귀인할수록 유죄판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역할귀인과 재판에 대한 태도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경들의 구속원인을 역할로 귀인할수록 유죄판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집단에 따른 강경대 사건의 해석의 차이가 귀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둘간의 관련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경의 구속원인을 성향으로 귀인하는 집단과 역할로 귀인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귀인집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향귀인집단은 역할귀인집단에 비해 전경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태도와 원인귀인, 사건의 전반적인 태도 및 처벌량의 판단에서 두 귀인집단간의 일관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타인의 행동원인을 성향으로 귀인하느냐 역할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행동원인을 어디로 귀인하느냐는 참으로 중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인의 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다. 의도에 의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그 사람이 져야 한다. 강경대 사건에서 보여진 전경들의 행동을 어떤 사람은 그 개인의 성향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전경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원인을 달리 지각한다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다르게 지각하게 한다. 실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경은 '마라이 사건'의 캘리처럼 경찰이라는 자신의 역할에 단지 충실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 여론의 대다수는 그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았다(동아일보, 1991년 4월 28일자).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전경의 행동을 그의 개인성향으로 돌리는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은 전경들이 실제 그들이 처한 입장이나 역할에서 비롯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전경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일 수 있다.

'마라이 사건'의 캘리와 '강경대 사건'의 전경에 대한 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하는 사람들처럼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그가 처한 역할이나 상황요인들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그의 성격이나 능력과 같은 개인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그의 역할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의 성향으로 귀인하는 것일까? 성향귀인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집단고양편파'와 '행위자-관찰자 편향', 두 가지의 견해로 각각 설명이 가능하다.

집단고양편파(Hewstone & Jasper, 1982)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외집단 성원들의 행

위는 성향으로, 내집단 성원의 행위는 상황으로 귀인하는 반면에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외집단성원의 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하는 것은 이런 성향귀인을 통해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의 자존감을 상대적으로 높일려는 동기가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경역할 집단에서 볼 때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경은 내집단 구성원의 행동이 되나, 학생역할집단은 외집단 구성원의 행동이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학생역할집단은 전경의 행위(외집단 구성원의 행위)를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므로써 상대적으로 학생집단(내집단)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집단고양편파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 같이 집단을 내외집단으로 범주화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이해경과 이수원(1994)는 외집단성원에 비해 내집단 성원들에게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내집단 편애의 원인을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특정 준거가치의 선호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전경들은 '보수'가치를 준거로 내외집단을 판단하므로 내집단인 구속된 전경의 행동은 좋지만 시위학생들의 행동은 나쁜 것이 된다. 반대로 학생들은 '진보'가치를 준거로 판단하므로 내집단인 시위학생들의 행동은 좋은 것이 되며 반대로 구속된 전경의 행동은 나쁜 것이 된다. 따라서 집단고양편파도 특정 준거가치의 선호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즉, 학생역할집단은 '진보'가치를 판단준거로 내외집단을 판단하므로 자신의 집단은 원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외집단은 원래 진보적인 못한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귀인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내집단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다. 이와같이 내집단 편애와 집단고양편파는 특정 준거가치만을 판단의 준거로 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성향귀인이 나타나는 이유는 '집단고양편파' 뿐만 아니라 '행위자-관찰자의 귀인편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위자일 때보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일 때 타인의 행위를 더 그의 성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Heider(1958)는 이런 편향의 원인을 행위자와 관찰자의 '주의'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관찰자의 주의가 행위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특출한 자극이 된다. 행위자가 '전경'이 되고 상황은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적 특출성 때문에 관찰자는 행위자가 행동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행위자-관찰자의 귀인차이는 결국 두 입장의 '주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역할집단은 구속된 전경들이 내집단원이 되는 반면에 학생역할집단은 그들이 외집단원이 된다. 따라서 구속된 전투경찰에 대한 지각에서 경찰역할집단은 '행위자'로서, 학생역할집단은 '관찰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동을 직접 행하는 행위자일 때보다 관찰자일 때 주의가 행위자의 행동에 집중되기 때문에 성향귀인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강경대 사건에서 전경역할집단에 비해 학생역할집단이 전경의 구속원인을 성향으로 더 많이 귀인하는 것은 학생들은 전경의 행동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Heider는 성향귀인이 내집단원 혹은 외집단원에 대한 지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향귀인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은 '집단고양편파'와 '행위자-관찰자 편

향'의 두 견해 모두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Heider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Winter와 Ulman(1984)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이런 '주의'의 차이가 성향주의의 발생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행위자의 행동을 문장으로 제시한 연구에서 즉, 행위자의 지각적 특출성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성향귀인의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반박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구속된 전경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생역할집단과 마찬가지로 전경역할집단은 구속된 전경들의 행위를 관찰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즉, 내외집단이라 하더라도 구속된 전경의 행위를 문장(시나리오)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두 집단의 '주의'는 두 집단 모두 '관찰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집단에 대해 성향귀인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Heider의 견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Winter와 Ulman의 주장 또한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에 대해 더 성향귀인을 많이 하는 충분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왜 외집단에 대해 성향귀인을 더 많이 하게 되는가? 이수원(1994)은 성향귀인의 차이를 특정 역할에 맥락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역할맥락화'의 문제로 보고 성향귀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할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향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역할을 상호 규정함으로써 내외집단이라는 집단의식이 필요하다. 즉,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이라는 두개의 대립된 역할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호 역할 규정이 있을 때에만 내집단과 외집단의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역할규정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전투경찰집단만 있는 경우나 시위학생만 있는 경우는 내외집단의 의식이 생길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이라는 두 역

합집단간의 대립이 있을 때 전경역할집단은 구속된 전경들을 내집단으로, 학생역할집단은 그들을 외집단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학생역할집단은 외집단으로 지각된 전경의 행동에 대해 성향으로 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향귀인의 원인은 상호 대립된 역할규정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경과 학생이라는 상호 대립된 역할 관계에 맥락화되었을 때 전경집단(내집단)에 비해 학생집단(외집단)이 전경의 행동을 더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성향귀인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만약 전경의 행동을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될 때와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각될 때 이 사건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여부일 것이다.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범법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 중에 하나는 그 행위의 고의성여부의 판단이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법학에서는 '주관적 귀속'이라고 하고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귀인'이라고 한다. Horai와 Bartek(1978)에 따르면 그 행동이 고의적으로 행한 것으로 지각될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함은 물론이고 재판에서 받는 처벌량과 처벌강도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법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심리학에서 발전된 귀인이론들에 따르면 특정행동에 대한 책임귀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행위자의 개인의지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Heider(1958)의 '현상적 인과추론'(phenomenal causality)이나 Jones의 (1990)의 '상응추론편파'(correspondance inference bias)와 같은 귀인이

론에 따르면 일반사람들은 타인의 행위를 외부요인보다 내적 속성으로 귀인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귀인한다는 것은 그 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성향이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Heider(1958)는 행위자의 행동이 내적 성향에서 나타난 것으로 귀인하였을 때 그에 따른 책임귀인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행위자의 행동원인을 내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귀인하였을 때 역할이나 상황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귀인할 때 보다 그 행위자의 의도가 더 개입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 행동에 대한 책임 또한 그 개인이 져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책임귀인이 일어나는 과정이 극히 주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런 내적 성향으로 귀인하는 정도는 성인에 비해 발달적 성숙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판단자들이 행위자에 대해 흥분 혹은 부정적 감정을 가졌을 때, 마땅한 비난 대상의 부재시, 혹은 사건의 돌발성과 회귀성과 같은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Heider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즉, 귀인과정은 극히 주관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라이사건'과 '강경대 사건'의 판결과정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주관적 판단과정이 결국 구속전경에게 더 강한 처벌을 판결하기도 하고 무죄로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동을 성향으로 보는 이런 성향주의는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 개인을 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성향주의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어 왔으나, 이런 성향주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는 실제 많지 않다.

이수원은 이런 성향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가 일어나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탈맥락화란 특정역할관계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위장면에서 전투경찰 대 시위학생이라는 사회적으로 상호 대립된 역할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벗어난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위장면에서의 전경과 시위학생이라는 대립된 역할관계의 맥락을 벗어났을 때 전경의 행동이 실제 특정 역할관계의 맥락에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전경의 행동에서 역할과 개인으로 분리하여 지각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의 행동이 단지 그의 역할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위학생역할자들은 더 이상 구속된 전경의 행동을 그의 성향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지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그의 성향으로 귀인하는 성향주의의 오류가 비일비재하다. 왜 사람들은 성향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까? 왜 탈맥락화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특정역할관계의 맥락을 초월해서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 행하는 많은 행동들은 역할에 깊이 몰입되어 나타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일상에서 행한 역할행동들은 오랫동안 수행해 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었거나, 그것이 또한 개인 성격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상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을 단지 역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지에서 행한 행동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타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행동은 실제 역할에 깊이 몰입된 행동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런 성향주의 오류가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사회적 사건 해석이 역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할이 달라졌을 때 행동원인의 귀인의 차이가 특정 사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역할이 다를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이 다를 때 내집단원과 달리 외집단원의 행동원인을 다르게 추론하게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외집단원의 행동을 개인성향으로 귀인하게 하였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또한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이런 지각의 차이는 사회적 역할이나 계층간의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사회적 갈등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건해석에 있어서 강경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이 아니라 단지 실험실에서 역할처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피험자들은 모두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시위학생의 역할에서 보다 전투경찰의 역할에 몰입하기 힘든 경우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특정한 한 역할관계 즉, 전투경찰과 시위학생역할만을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정을 다른 역할관계에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사회에는 많은 역할관계가 존재한다. 시위학생과 전투경찰과 같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

람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도 본 연구의 가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를 역할에 따른 귀인의 차이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사건해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귀인변인 이외에 해석의 차이를 빛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태준.이수원(1992).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시각에서 입장개입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권 2호, 29-42.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정민사.

배종대(1993). *형법총론*. 서울:홍문사.

이수원(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13권 1호, 129-152.

이혜경.이수원(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 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사회*, 8권 2호, 108-123.

이수원.이혜경(1992). 역할과 개인의 분리: 역할수용의 한 기제. *대학생활연구*, 9호, 81-109.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 New York : Wiley.

Hewstone, M., & Jasper, J. M. F.(1982). Explanation for racial discrimination : The Effect of group discussion on intergroup attribu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56-67.

Horai, J. & Bartek, M.(1978). Recommended punishment as a function of injurious intent,actual harm done, and intended consequ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575-578.

Gaertner, S. L., Mann, J., Murrell, A. Dovidio, J. F.(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Jones, E. E.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New York : Freeman.

Kelman, H. C., & Hamilton, V. L. (1989). *Crimes of obedience: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authority and resposnality*. New Haven: Yale Univ.

Kelman, H. C., & Lawrence, L. H. (1972). Assignment of personality in the case of Lt calley. *Journal of Social Issues*, 28(1), 177-212.

Winter, L. & Ulman, J. S.(1984). When are social judgement made? Evidence for the spontaneoussness of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37-252.

The Effects of Social Role on the Perception of 'Kang Gyong-Dae' Event

Hae-Gyoung Lee and Soo-Won Lee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 role on the perception of social event('Kang Gyong-Dae' event).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social roles would be showed consistent differences to attitude toward trial of combatant polices related to the event, attribution, global attitude and the judgement of punishment level to the 'Kang Gyong-Dae' event. In order to examine this hypothesis, When the Subjects were given a treatment of social roles - a combatant police and a demonstration student, the consistent differences appear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vent. As a result, In the attitude toward trial of arrested combatant polices because of the event, The combatant police roles group judged them guiltless, but the demonstration student roles group judged them guilty. In the attribution to the arresting of the polices, The combatant polices roles group was attributed to the roles, but the demonstration student roles group was attributed to the personal disposition. In the judgement of punishment level, the demonstration student roles group judged that extreme pushiment must be give to the people related to the event in comparison with the polices roles group. Thus, in this study was hypothesised that the cause of the consiste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roles was because of the attribution difference, the personal disposition or the roles. These hypotheses were all confirmed in the results.